

韓, UN식품조달 공식업체 지위 획득 국산 영양강화립 WFP 첫 공급 개시

농식품부, 원조·수출 결합 새 모델
범정부 협력, 국제조달시장 첫 진출
젤텍, 방글라데시 난민 인조미 지원
영양강화립 이어 품목 확대 본격 추진
국제사회 기여, 농식품 산업성장 병행

우리나라가 국제기구 식품조달시장 공급자로 합류한다. 그간 쌀을 단순히 공여해 온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조+수출'이라는 공적개발원조(ODA) 새 사업모델의 서막을 연 것이다.

정부는 14일 (취)젤텍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영양강화립' 공식 공급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영양강화립은 쌀가루에 비타민·무기질을 첨가해 쌀알 모양으로 반죽·압출·성형한 인조미다. 쌀의 맛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영양가를 높여 영양실조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대한민국 농식품 기업이 국제기구 조달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정부의 식량원조사업이 단순한 쌀 공여를 넘어 국내 기업의 수출길을 여는 내실화된 ODA 모델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2024년 11월 글로벌공공조달수출상담회에서 WFP 조달담당관을 초청한 것을 계기로 농식품부·조달청·기획재정부와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이 함께하는 '유엔조달시장 진출 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협의체는 영양강화립을 수출 전략 품목으로 선정한 뒤 WFP 식품기술 전문가를 초청해 생산 현장에서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유엔 식품공급자 등록을 위한 '세계영양개선연합 인증'을 국내 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추진 중인 전 세계 기아 퇴치에 동참한 배우 문소리씨. /WFP 홈페이지 캡처

업 최초로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이달 4일 젤텍이 영양강화립 공급자로 선정돼 국내에선 최초로 27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유엔 식품조달시장에 진출했다.

국산 영양강화립 201톤(t)은 10월 방글라데시로 출항하는 원조쌀 2만t과 함께 현지 난민·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출항을 계기로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t 식량원조와 영양강화립 첫 지원을 기념하는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정경석 국제협력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기아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동시에, 식량원조사업이 국내 농식품 산업 성장과 연계되는 내실화된 사업 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영양강화립 뿐 아니라 영양강화 비스킷, 슈퍼시리얼 등 다양한 품목으로 우리 농식품 기업의 유엔 조달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

겠다"고 했다.

조달청의 이형식 기획조정관은 "이번 성과는 범정부적 협력과 기업의 도전의지가 어우러져 높은 유엔 식품조달시장의 문턱을 넘어선 첫 사례"라며 "기술 개발부터 조달 절차까지 국제기구 조달시장에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계기로 WFP를 통해 식량위기국에 매년 쌀을 원조해 왔다. 7년간 연간 300만~800만 명의 식량위기 인구를 지원했다.

우리 쌀은 품질이 높고 조리가 쉬워 수혜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 각국에서 난민·취약계층·학교급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됐다. 또 코로나19,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불안정한 사회·지정학적 여건 속에서도, 매년 현지 도착을 적시에 이뤄 내 식량위기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건설업 첫 노동·산업안전 통합 감독 시행

고용부, 임금체불 등 297건 적발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건설업체 본사와 현장 등을 대상으로 첫 노동관계·산업안전 합동 감독을 벌인 결과, 300건 가까운 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향후 국토부와 협업해 합동 감독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간 10개 종합건설업체 본사와 이들이 시공하는 50억 원 이상 현장 20 곳을 포함한 총 69개 업체를 대상으로 통합 감독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독에는 5개 지방관서 소속 근로감독관 100여 명이 투입됐다.

감독 결과, 총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임금체불은 34개소에서 38억7,000만 원 규모(1357명)가 적발됐다. 이 중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피해를 본 대규모 체불 사례(6억2000만 원)는 범죄로 인지해 사법처리될 예정이다.

그 외 26개소에서 적발된 33억3000만 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감독 과정에서 적극 지도해 즉시 청산했다.

또 일부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노동자에게 분배하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불법 관행도 적발됐다. 특히 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설업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사례도 적발됐는데, 무자격자에게 공정을 일괄 하도급한 건이 확인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25개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굴착기 흠해지장치 미부착, 크레인 인양작업 중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 미배치 등 중대 안전조치 위반으로 2개 사업장이 사법처리됐다. 또 안전관리자 미선임, 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관리 소홀 사례에 대해서는 1억 175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남부발전, 하반기 신입·별정직 94명 채용

탈락자 대상 전형 결과 피드백 제공

한국남부발전이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및 별정직 94명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 규모는 대졸 수준 81명, 고졸 10명, 별정직 3명이다. 지원서는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하며, 서류·필기·면접 전형을 거쳐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은 정부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신학교, 나이 등 차별 요소를 배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부발전은 장애인·보훈 대상자 채용을 포함한 사회형평적 채용을 시행하고, 직업체고 출신 우수 인재를 위한 고졸 수준 신입사원 채용도 2년 연속 이어간다.

특히 남부발전은 '보듬채용' 프로그램을 통해 전형 탈락자에게 단계별 평가 결과와 구체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원자들이 향후 역량 개발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열린 채용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우수 인재를 위한 채용목표제를 운영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상반기 94명 채용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규모 채용을 통해 구직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따뜻한 채용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채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남부발전 홈페이지 채용정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국립공원공단

기후변화 징후 뚜렷

개구리 산란 빨라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내 산림·무인도서에서 장기간 생물계절을 관찰한 결과, 개구리와 새 등의 산란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는 등 기후변화의 뚜렷한 징후가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생물계절이란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 동식물이 나타내는 현상의 시간적 변화를 말한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는 큰산개구리의 첫 산란 시기를 15년간 관찰한 결과 18일가량 앞당겨졌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흥도의 꿩이갈매기 역시 산란 시기가 평균 6.5일 빨라졌다.

설악산국립공원에서는 신갈나무의 잎이 나무에 매달린 착엽 기간이 최근 10년(2015~2024년) 동안 평균 152일로 나타나, 2015년에 비해 2024년에는 약 48일 더 길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반적으로 동물과 식물 모두에서 생물계절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AI·빅데이터로 산재 예방 돌입

안전보건공단, 고위험 현장 집중 관리
추락·끼임·질식·외국인 등 레드 지정
산재 취약 업종 단기 집중 점검 착수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하고 단기간 집중 관리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2000개 사업장을 '레드(RED) 2000'으로 지정하고 9월 15일부터 10월 말까지 예방 활동을 집중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레드 2000' 사업장은 공단이 AI 기반 예측 모델을 활용해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 유형인 추락, 끼임, 질식, 외국인 고용 관련 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별한 곳이다. 공단은 이번 집중 관리 기간 동안 5대 핵심 위험요인인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에 대한 선제적 지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추락 위험은 사망사고가 잦은 건설현

장, 끼임 사고는 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사업장, 질식 위험은 하수·폐수 처리 시설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신규로 고용되거나 증가한 사업장도 관리 대상으로 포함된다.

공단은 2024년부터 운영 중인 '고위험 사업장 인공지능(AI) 예측 시스템'을 통해 표적화된 점검을 추진한다. 이 시스템은 산업재해 이력, 위험 기계·기구 현황 등 고위험사업장의 다양한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개별 사업장의 위험도를 0~1의 수치로 예측한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단기간 내 사망사고 감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공단 측 설명이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AI·빅데이터 기반 고위험사업장 예측 시스템은 산재 예방 효율과 성과를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라며 "산재 취약 분야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 주도’ 제3자 결제 보안 국제표준 제정

산업부·금융결제원, ISO 표준 제안

우리나라가 제안한 제3자 결제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정보보호 지침이 국제표준으로 발간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 표준원과 금융결제원은 2022년 8월 ISO 금융서비스 국제표준화위원회(ISO/TC 68)에 표준안을 제출했고, 3년간의 국제 논의를 거쳐 ISO 18960 표준으로 최종 확정됐다.

제3자 결제서비스는 고객 계좌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기관이 모바일·온라인 결제, 조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가 대표적이다. 이번 표준은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에서 설치·운영·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의 정보보호 지침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고객 개인정보 관리, 관리자 접근 통제, 보안구역 출입 관리, 시스템 공급업체 보안 관리 등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국제표준 발간으로 국내 기업이 국제 수준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해 해외 시장 진출이 한층 용이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우리기업이 활용가능한 표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